

#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대

— 국세청, 2024. 6

-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'22년(147개)에 비해 27.9%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.
- 또한, 공제받은 금액은 총 8,378억 원으로 '22년(3,430억 원)에 비해 약 2.4배 증가하였습니다.

## < 가업승계 분야 >

### 세법개정 · 가업승계 지원 효과로 가업승계 대폭 증가

-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'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그 결과 2년간('22~'23년)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('19~'21년, 101건)에 비해 66.3% 증가하였고,
- 연평균 공제액은 5,904억 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.3% 증가하였습니다.
- 특히, '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'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.1배, 공제액은 3.5배 증가하였으며,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

### < 가업상속공제 혜택 현황('19~'23년) >

(단위: 건, 억 원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건 수	88	106	110	147	188
공제금액	2,363	4,210	3,475	3,430	8,378

## < 상속세 분야 >

### 상속세 과세 대상은 '19년 대비 2.4배 증가

-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,944명으로 '19년(8,357명)에 비해 2.4배 증가하였고, 결정세액은 '19년(2.8조 원)에 비해 4.4배 증가한 12.3조 원입니다.
- 상속세 과세 대상은 '03년 1,720명에서 '20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하여 2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.
-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'03년(4,623억 원)에서 비해 '13년(1조 3,630억 원)에 약 3배 증가하였는데, '13년에서 '23년 사이 9배 증가하였습니다.

#### < 상속세 결정 현황('19~'23년) >

(단위: 명, 조 원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피상속인	8,357	10,181	12,749	15,760	19,944
결정세액	2.8	4.2	4.9	19.3	12.3

### 상속세 신고는 전년대 감소, 상속세 납부자 평균 재산은 21.4억 원

- 지난해 18,282명이 총 39.1조 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'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지난해 수치를 '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하였으나,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.4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.
- 한편,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해당 통계 발표('03년) 이후 '22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며,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

#### < 상속세 신고 현황('19~'23년) >

(단위: 명, 조 원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신고인원	9,555	11,521	14,951	19,506	18,282
상속재산 가액	21.5	27.4	66.0	56.5	39.1

### 상속재산 가액 10억 ~ 20억 원 구간이 신고인원 가장 많아

-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~ 20억 원 구간으로 전체



신고인원의 42.9%를 차지하였습니다.

- 상속재산 가액 10억 ~ 20억 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,849명(42.9%), 세액은 0.6조 원(9.2%)으로 1인당 평균 7,448만 원을 냈습니다.
-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 ~ 500억 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(2.3%), 세액은 2.2조 원(34.1%)이었습니다. (평균 50.8억 원)
- 한편, 상속재산 가액 5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(0.16%)이 상속세 0.9조 원(14.1%)을 부담하여, 1인당 평균 310.2억 원을 냈습니다.

####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의 비중이 68.8%로 가장 높아

-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.5조 원(47.6%), 토지 8.2조 원(21.2%)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.8%를 차지하였습니다.
- '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.7배 증가하였고, 토지는 23.2% 증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
-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(47.6%)은 해당 통계 발표('17년) 이후 가장 높았으며, 40%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.

\* ('17) 27.5 → ('18) 27.8 → ('19) 32.1 → ('20) 38.9 → ('21) 23.9 → ('22) 36.8 → ('23) 47.6%

< 자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('19~'23년) >

(단위: 조 원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토 지	6.7	6.2	7.8	8.8	8.2
건 물	6.9	10.6	15.7	20.7	18.5
유가증권	2.6	4.7	30.6	17.3	3.6
금융자산	3.5	3.9	5.9	6.3	6.0
기 타	1.7	1.9	5.9	3.2	2.6
합 계	21.4	27.3	65.9	56.4	39.0

#### 연부연납 기간 연장 이후 2년 연속 연부연납 비율 20% 초과

- 지난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전체 신고 중 24.2%인 4,425건,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.9%인 3.1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
- '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.1배, 세액은 2.2배 증가하였으며, 전체 신고 중 연부연납이 차지하는 비율도 9.5%p 증가하였습니다.

- 한편, 세법개정('22년)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이후 연부연납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년 연속 20%를 초과하였습니다.

< 상속세 연부연납 현황('19~'23년) >

(단위: 건, %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전 체	9,555	11,521	14,951	19,506	18,282
연부연납	1,406	1,695	2,605	4,756	4,425
비 율	14.7	14.7	17.4	24.4	24.2

< 증여세 분야 >

증여세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은 2년 연속 감소

-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4,230건, 증여재산 가액은 27.3조 원으로 모두 '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법원 등기정보광장(data.iros.go.kr)에 따르면 '23년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감소\*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체 증여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.  
\* ('21.10월~'22.9월 증여) 327,822건 → ('22.10월~'23.9월 증여) 264,678건(△19.3%)
-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'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, '19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.

< 증여세 신고 현황('19~'23년) >

(단위: 건, 조 원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신고 건수	151,399	214,603	264,274	215,640	164,230
증여재산 가액	28.3	43.6	50.5	37.7	27.3

증여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으나, '17년 이후 최저(47.4%)

- 지난해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.9조 원(29.0%), 토지가 5.0조 원(18.4%)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.4%를 차지하였습니다.
- 이는 해당 통계 발표('17년) 이후 최저치이며, 부동산의 비중이 50%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.  
\* ('17) 58.2 → ('18) 61.5 → ('19) 59.8 → ('20) 63.6 → ('21) 57.1 → ('22) 50.9 → ('23) 47.4%
-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'19년과 비교하면 토지 증여는 감소하고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,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



## &lt;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('19~'23년) &gt;

(단위: 조 원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토 지	8.8	7.9	8.9	7.2	5.0
건 물	8.1	19.9	19.9	12.0	7.9
유가증권	4.6	5.9	7.3	6.3	4.7
금융자산	5.1	7.0	10.3	8.7	6.9
기 타	1.7	3.0	4.0	3.6	2.8
합 계	28.3	43.6	50.5	37.7	27.3

##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'19년 대비 약 40% 증가

- 지난해 미성년자(20세 미만)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3,637건, 증여재산 가액은 2.1조 원으로 확인됐습니다.
-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'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43.9% (0.9만 → 1.4만 건), 증여재산 가액은 41.6% (1.5조 → 2.1조 원) 증가하였습니다.
-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.5%로 가장 많았으며, 30억 원 이상의 증여도 63건(0.5%) 있었습니다.
- 한편,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(32.2%)을, 성인의 경우 건물(32.4%)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## &lt; 향후 계획 &gt;

-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「상속·증여 세금 상식」을 제작하는 한편,
- 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.